

제 52 호

연중 제 34 주일  
(그리스도 왕 축일)

1973. 11. 25

#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 【문 헌】

## 하느님의 일과 평신도 사도직

—사목 협의회에 관한 회람장—



그리스도교 입문의 성사 (=성세·건진·성체)를 통하여 영신적 건물이요 거룩한 사제로 축성되기 위하여 성령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하느님의 모든 사제적 백성의 구원사명을 실천하도록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이 꼭 같은 방식으로 이 공동사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조직적인 일치 안에 각자 자기 처지에 해당되는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먼저 신자들 중에서 선정되어 교계적 봉사직을 수행하는 성직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옛날부터 주교, 신부, 부제라 불려왔다. 그들이 받은 신품성사에 의하여 그들은 주로 명시적으로 성직에 종사하며, 그들의 고유한 권한으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에 의하여 하느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성화하고 다스리되 각자는 그 품계(品階)에 따라서 이행한다.

수도자들은 교회 앞에서 행한 공식서원에 의하여 진복판단(眞福八端, 마태오 5; 3-10)의 정신이 없이는 세계를 변형시킬 수도, 세계를 하느님께 바칠 수도 없다는 것을 탁월하게 증명한다.

평신자들은 복음정신에 의하여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여 누룩과 같이 안에서부터 이 세상을 성화하기 위하여 또 신앙과 희망, 사랑으로 빛나서 생활의 증거로서 그리스도를 타인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성소를 받았으며, 또한 여러가지 모양으로 교계적(敎階的) 사도직에도 더 직접으로 협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이 각자에게 해당되는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교회의 구원사명은 결코 교계적 목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목자들은 그들만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구원 사명의 전부를 맡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목자로 세우신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들의 훌륭한 임무는 신자에 대한 목자의 사명을 알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처지대로 이 공동사업에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평신자들에게도 직무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위적 사제직을 받지 않은 신자들도 위에 말한 교회의 사도적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성직자들에게 고유한 사목직책을 도와줄 수 있다. 모든 신자들은 그들의 지식과, 자격과 지위에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능력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런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주-사도회, 사목협의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1973. 1. 25. 로마 성직자 성서

### ※이주일의 미사※

□임당송 주 하느님, 당신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그 마음 당신께 돌아오는 이들에게 정녕 평화를 말씀하시나이다.

□제1독서 (다니엘 7:13-14, 경향잡지 11월호 P. 21) 그의 권세는 영원하다.

□총계송 ◎야훼는 임금님, 위엄을 차리시도다. 당신의 어좌는 예로부터 견고하니, 영원부터 당신은 계시나이다. ◎

□제2독서 (묵시록 1:5-8, 성서 P. 558)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왕국을 이루고 성부를 섬기는 사제 되게 하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오도다. 알렐루야.

□복음 (요한 18:33-37, 성서 P 254)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했다.

□신자들의 기도

1. 만민의 왕이신 그리스도여, 우리들은 너무나도 자주 내세(來世)에 대해서는 잊고 삽니다. 그러다 보면 부정과도 타협하고 불의와도 야합해 버리고 맙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망덕과 용기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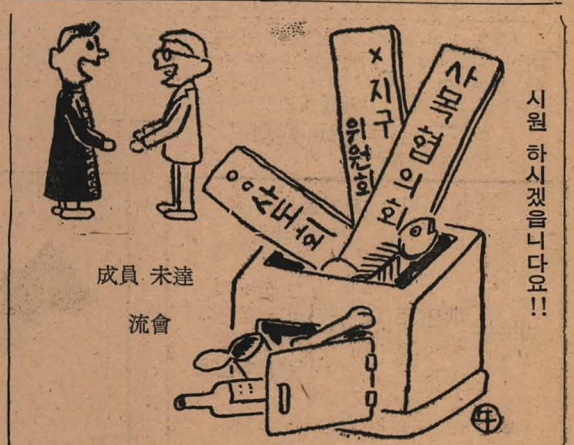
2. 사랑이신 주여, 한해를 보내는 이 마당에 우리에게 호숫할 보다는 빠져릴 회한(悔恨)으로 가슴이 터집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우시어 보람된 삶을 위해 힘쓰게 인도주소서. ◎

3. 위로자이신 주여, 위령성월도 다 지나갑니다. 불쌍한 연옥 영혼들을 잊지않고 기억하며, 제자신들도 돌아다 볼 줄 아는 심안(心眼)을 열어 주소서. ◎

†. 주여,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어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 아멘.

□영성체송 못 나라 백성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 사랑 우리 위에 꽃꽂히소서.

### ※ 숲정이 산책 ※





□이색 논단□

하느님께 올리는 글

만물을 주재(主宰)하시고 섭리(攝理)하시는 하느님,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이런 글월을 올릴 필요가 없겠습니까만,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말씀드려 봅니다.

지난 주일은 당신의 백성이면서도 그 축에 끼지 못하던 병신도(病身徒)들을 <평신도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날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병신도라고 불러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변입니까? 교구 사목 평의회가 소집한 「중앙 위원회」가 정족수가 못되어 유회되고 말았습니까. 역시 병신도가 평신도가 되기에는 너무나 이른 모양이죠?

죄송스럽게도 군더더기 같은 말씀을 좀 올려야겠습니다. 당신은 사목 협의회의 기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공개되는 이 글을 읽는 병신도들은 물론 사도회장, 심지어는 사제들까지도 아직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단돈 1,000원을 받아 내야할 일이라든가 갓돈을 타야할 날짜는 잊지 않았지요. 당첨된 800만원짜리 복권 번호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래서 간단히 몇 말씀 설명을 드립니다.

각 본당에는 사도회가 있고, 그 사도회는 전문성을 중시하는 이 사회에 발맞추고 능률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부서를 나누었습니다. (표①참조)

**표① 사도회(使徒會)**

선교부    교육부    재정부    사회부    부녀부    구역장(반장)

또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서 가까운 본당끼리 지구를 나누어 저희 교구는 5개 지구가 있습니다. (표②참조)

**표② 지구 조직**

제1지구-고창, 김제, 부안, 수류, 신태인, 정읍  
 제2지구-대야, 둔물동, 월명동, 중동, 함열, 화산  
 제3지구-고산, 금산, 삼례, 여산, 주현동, 창인동, 황등  
 제4지구-노송동, 덕진, 복자, 서학동, 전동, 중앙  
 제5지구-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계, 진안  
 이 기본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각 지구별로 전문

성 있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구안의 선교부장들끼리 모여 선교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는 식의 조직이지요. (표③참조)

**표③ 지구 분과 위원회**

사도 분과 위원회 - 본당 사도회장  
 선교 분과 위원회 - 본당 선교부장  
 교육 분과 위원회 - 본당 교육부장  
 재정 분과 위원회 - 본당 재정부장  
 사회 분과 위원회 - 본당 사회부장  
 부녀 분과 위원회 - 본당 부녀부장

이 조직은 다시 위로 올라와 교구에도 그런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지구 사도 분과 위원장들이 모여 교구 사도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는 식의 그런 조직입니다. (표④참조)

**표④ 교구 분과 위원회**

사도 분과 위원회 - 지구 사도 분과 위원장

□평신도 사도직의 진로□

- 선교 분과 위원회 - 지구 선교 분과 위원장
- 교육 분과 위원회 - 지구 교육 분과 위원장
- 재경 분과 위원회 - 지구 재경 분과 위원장
- 사회 분과 위원회 - 지구 사회 분과 위원장
- 부녀 분과 위원회 - 지구 부녀 분과 위원장

이런 조직을 바탕으로 하는 교구 사목 협의회는 최고의 결기관으로 각 본당 사도회장들과 교구 각 분과 위원장들의 모임인 교구 위원 총회를 두고 있습니다. (표⑤참조)

**표⑤ 교구 위원 총회** - 최고 의결기관

사도회장단 (31명)  
 교구 각 분과 위원장 (5명)

또한 집행 기구로는 교구 사도 분과 위원들과 교구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된 교구 중앙 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표⑥참조)

**표⑥ 교구 중앙 위원회** - 최고 집행기관

교구 사도 분과 위원 (5명)  
 교구 각 분과 위원장 (5명)  
 총무처장  
 지도신부

그런데 그 중앙 위원회를 이루기 위한 교구 각 분과 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안되어 지난 평신도의 날에 회의 소집을 했는데 그만 그리되고 말았습니다. (표⑦참조)

표⑦ ※ 교구 중앙 위원회 출석 상황 (73. 11. 18)

분과위	사도	선교	교육	재경	사회	부녀
지구						
1	김제					
2	월명동				중동	
3		주현동	여산			창인동
4	복자	전동	노송동	중앙	덕진	서학동
5			무주			

(※참석한 본당을 기명 표시하였음)  
 소집 통보는 본당 신부님들과 사도회장님들께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아직 각 본당의 사도회장님 명단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지만 본당 신부님 앞으로 공문을 띄웠죠. 한 봉투 안에 <사도회장님 귀하>라고 표시해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그리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는 동포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안에 함께 숨쉬고 있는 형제들이라면서 제대로 말이 안통했는지? 아니면 말을 사고, 소를 사고, 막 장가를 들어서인지 (루가 14:12-24) 그리되고 말았습니다.

하느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날 크게 실망했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머리를 흔들며 보았습니다. 실망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앞으로 더욱 잘 해보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디 꼭 그럴 수만 있습니까? 용기를 잃고 실망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더 노력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저버리지 않는 당신이기에 이렇게 애타게 말씀 드립니다.

조흥(사자표) 페인트 대리점 (집질 전문)

대동 페인트상사 } 고급벽지, 비닐장판, 하드보드, 각종페인트

● 동문 사거리 전화 ⑤ 5986  
 임정원 (도민고)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판토호의 직자 V레트프



렉스 (임한전 애견)  
 문의처 : 전화 ⑦692(진북동 어은골)

노루표 페인트 전복대리점 <도장공사 전문>

대한 도료 상사

● 중앙성당 정문 옆  
 전화 ⑤ 4874  
 김인근 (디도)



□ 신 간 안 내 □

M. B. C. 연속방송. 내일을 위한 오늘



# 사색하는 생활

(이 거 영 지음)

「현대를 가리켜 <사랑의 사막지대>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인정이 메말랐습니다. 정서가 시들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물질 문명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억누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불안하다고 합니다. 초조하다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허전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공허해지기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거기서 삶의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에는 사색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한 번 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이기에 우리는 한시라도 인생을 무의미하게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은이의 머리말에서)

교구 매스컴 위원회의 요청으로 지난 69년과 70년, 전주 문화방송의 네트워크를 통해 「내일을 위한 오늘」이란 주제로 방송 원고를 집필했던 이거영(알로이시오-성심여교 교사)씨가 2년동안 방송했던 원고들을 총정리, 「사색하는 생활」이란 단행본을 발간했습니다.

「사랑의 사막지대」위에 사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색의 양서(良書)라고 믿기에 교형자매들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주문처:전주 성심여중교(전화 ㉠ 5037)와 각본당 사무처

●정가 : 보급판 500원, 특별판 600원.

## 요심이 (19) 김병오

도대체 관심이 없단 말이야	반응을 알아 보자
사도회에 참석하세요	바빠서 2시간 눅는다 해라
지구별 위원회에 참석하세요	술이 취해서 못간다 해라
사목협의회에 나오시래요	그런 회도 있었는가?

### 가톨릭 센타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화 ㉠3498)

- 27(화) 7시반.....성경교실
- 29(목) // .....지성인 교리
- 30(금) 8시.....레크레이션 (주최 : 가톨릭센터와J.O.C)

#### 외국 문화 교실

- English Conversation.....월~금요일 7시
- 독어-Heideros.....화, 목요일 6시
- Morgentau.....월, 수요일 6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 성 바오로 서원 \*  
(전화㉠7398)

### \* 이 주간의 성경 \*

- |                                   |                                   |
|-----------------------------------|-----------------------------------|
| 26(월) 독서 (로 마 6: 15-23, 성서 P.348) | 29(목) 독서 (로 마 10: 1- 8, 성서 P.356) |
| 복음 (루 가 21: 1- 4, 성서 P.188)       | 복음 (루 가 21: 20-28, 성서 P.189)      |
| 27(화) 독서 (로 마 7: 7-12, 성서 P.349)  | 30(금) ▲ 성 안드레아 사도                 |
| 복음 (루 가 21: 5-11, 성서 P.188)       | 독서 (로 마 10: 9-18, 성서 P.357)       |
| 28(수) 독서 (로 마 8: 1-11, 성서 P.351)  | 복음 (마태오 4: 18-22, 성서 P. 6)        |
| 복음 (루 가 21: 12-19, 성서 P.189)      | 1(토) 독서 (로 마 11: 1- 6, 성서 P.358)  |
|                                   | 복음 (루 가 21: 34-36, 성서 P.190)      |

### 일본어(日本語)교수

기초부터 회화·번역까지

<12월 1일 개강>

●전동1가 200의1 (전화㉠ 3222)

장 북만(요셉)

고급찻집, 경쾌한음악, 병온방시설

### (신장개업)

새로운

### 남문다실

남문여관 지하실 직통 ㉠ 4881

교환 ㉠ 2169 5017

### \* 단 교우 월부 판매 \*

동남샤프 { T V  
빙장고  
석유스토브

●전주극장 동편 입구

전화 ㉠ 8121

여요셀(운창)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1. 제4지구(전주 지구) 성년 행사 안내

전주지구 제1차 성년행사 계획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으니 모든 교우들은 이에 적극 협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순회 행사」 (가을 판공 성사를 결합)

때	성당	미사 집전 사제	강론사제	고백 성사 집행 사제 (미사 시간 중)
26(월)	중앙	안복진, 함승천, 유장훈	박진량	오기순, 김영일, 김종택, 범석규, 문정현
28(수)	전동	범석규, 오기순, 박진량	박진량	김영일, 김종택, 안복진, 함승천, 문정현, 유장훈
30(금)	덕진	김종택, 김영일, 안복진	유장훈	오기순, 범석규, 함승천, 문정현, 박진량

- ① 고백성사 (오후 7시-8시반) 제4지구 및 특수 사목 (성심, 센터, 해성)담당 신부 전원. ②미사 (오후8시반)
- 2. 아동부 제2차 성가 경연대회 (주최: 전주지구 교육분과위원회)

- ① 때...25일(일) 오후 2시 ② 곳...중앙성당

각 본당의 명예를 걸고 겨루는 성가 솜씨를 부모님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보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재속 전주 방지거회 월례회와 심의회 (12월 1일 중앙성당)

4. 북부 울뜨레아 (노송, 덕진, 중앙 본당 소속-24일(토)5시 미사후, 중앙에서)

5. 신부 인사 이동 (73. 11. 16자) 김반석 신부(임실) 황인규 신부(월명동) 김봉희 신부(고창)

(중앙)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이복석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오성훈

- 1. 고백성사 (내일 오후 7시부터)
- 2. 신용 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3. 설문서 (아직 제출 안하신 분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는 용지를 이용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혼배 조당자 모임 (12월 2일 밤8시반, 사제관)

1. 본당 살림에 관심을 가집니다. (교무금 납부 협조요망)

2. 주일금은 정성을 다해 봉헌합니다.

3. 유아세례 (12월 4일<화> 오전 10시)

4. 예비신자 교리 (매주 주일 공식 미사후, 수요일 미사후)

5. 팀회합 (월요일, 본당 사무실에서)

□성미 3말 4되 (누계 219말)

지난 주일 봉헌금 12,337원, 감사합니다.

□교무금 신입액 2,619,850원 (83%)

지난 주일 봉헌금 36,55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 화 ②227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최상익

- 1. 성년 행사에 수고해 주신 신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2. 판공성사 못보신 분은 미사전에 (성사표준비)
- 3. 신용조합 월례회(공식 미사후)

★ 축결혼 ★

27일...양성환 군과 임금님 양

28일...최완규 군과 두진여 양

□교무금 신입 호수 120호만

성년 봉헌금 7,982원,

지난 주일 봉헌금 12,545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 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찬

- 1. 판공 성사 (28일<수> 오후 7시부터)
- 2. 방지거 3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전동 성당)
- 3. 성가 연습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람.

□교무금 신입 현황 1,927,000원(264세대)

부녀부 성미 3되 (누계 53,165원, 백미 1말2되)

지난 주일 봉헌금 32,731원

평신도 주일 특별헌금 6,286원, 감사합니다.

◆ ◆ ◆ 알 림 ◆ ◆ ◆

숲정이가 이제 돌맞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밭상을 보아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 숲정이를 위한 고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6,315원

평신도 주일 특별헌금 1,300원, 감사합니다.

평신도 주일 특별헌금 1,300원, 감사합니다.

\* 역전 보광출판사 인쇄 \* 전화 ② 3272 번

◆ ◆ ◆ 알 림 ◆ ◆ ◆